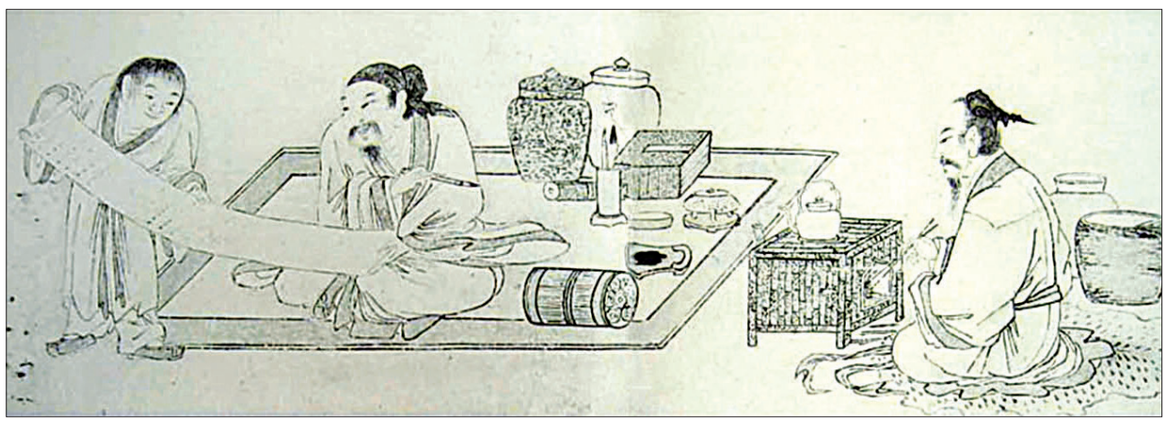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⑮ 최적의 차 보관법은

선인들은 차를 어떻게 보관했을까



명나라 문인 당인의 '품다도'. 도쿄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요즘처럼 비가 잦은 계절이 되면 쾌적한 환경이 그리워진다. 차는 무덥고 습한 장마철을 견딜 에너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좋고 나쁨이 공존하는 것은 자연의 원리이니 습기가 많은 여름엔 차의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비가 내릴 때 차를 꺼내면 차에 습기가 침투할 수 있다. 만약 차에 습기와 다른 향이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일순간에 마실 수 없는 차로 전락한다. 왜 그런가. 이는 접물성이 강한 차의 속성 때문에 다른 향이나 습기를 잘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인들은 진기(珍奇)한 차에 한 번이라도 습기나 나쁜 향이 스며들면 한 순간에 차의 진기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터득했던 것이다.

한편 사람들이 차를 좋아하는 연유는 심신을 평탄하게 조절해 주는 차의 효능 때문이다. 이는 차의 내적인 요소인 기운과 외적 요소인 향기, 맛, 색 등의 작용에 따른 결과이다. 차에서 보존해야 할 요소는 색과 향기, 맛, 기운이다. 이런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면 차는 감미롭고 기운도 활발한 차가 되니 이런 차를 마시면 힘이 나고 마음이 즐거워진다. 이런 차의 덕성을 터득했던 선인들은 이를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니 이는 고금의 다서(茶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다사(茶事)의 핵심은 제다와 탕법, 그리고 차 보관법, 다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의 보관법은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쳤던 것일까. 이에 대해 논의해 보면, 차 문화를 집대성한 육우는 〈다경〉'사지기(四之器)'장에서 "종이 봉지, 희고 두꺼운 섬등지를 겹으로 꿰매서 구운 차를 보관하여 차향이 새어 나가지 않게 하였다.(紙囊以剡藤紙白厚者 夾縫之 以貯所炙茶使不泄其香也)"라고 하였다. 이는 중당 시기에 차 보관을 어떻게 했는지를 드러낸다. 결국 8세기의 차 보관법은 막 구워낸 차의 향기가 새어 나가지 않게 하는 조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덩이차(餠茶)를 약한 불에 구운 후 가루로 만들어, 이를 끓인 물에 넣는 자다법(煮茶法)이 유행했다. 그러므로 구운 차의 향기가 새어나가거나 다른 향기와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종이봉투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는 초기 차 보존법의 언급으로, 차의 정유(精腴: 차의 풍부한 맛과 향기·기운)가 새어나가지 않게 한 조치였다.

육우가 말한 차의 보관법은 종이봉투에 잠시 넣어 둔 것이며, 이때 사용한 종이는 섬현에서 생산된 종이였다. 섬현은 바로 당대의 지명이며, 현재 절강성(浙江省) 승현(嵊縣) 지역이다.

차의 보관법이 장다(藏茶)라는 용어로 정의된 것은 송대(宋代)이다. 앞 시대인 당대에는 구운 차를 잠시 동안 섬등지 종이봉투에 보관하였지만, 송대는 장다라는 용어를 구체화하였다. 이는 장다가 방법, 조건 등 차를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개량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오묘한 차의 향기, 맛, 기운을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이론화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장다, 즉 차 보관법의 이론화를 확인할 수 있는 문헌 자료는 무엇일까. 이는 1075년경 황유(黃儒)가 〈품다요록(品茶要錄)〉을 저술한 이후 증보한〈품다요록보(品茶要錄補)〉'향기를 두려워하며 (차를 보관하기) 따뜻한 곳이 마땅하다(畏香宜溫)'장에서 확인된다.

당대엔 종이봉투 넣어 보관
송대 '장다' 개념이 탄생해
조선代 도자기 보관 보편화

그런데 황유의 자료는 채양(蔡襄, 1012~1067)의 〈다록(茶錄)〉'장다(藏茶)'를 인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장다의 개념은 채양에 의해 정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채양이 말한 〈장다〉의 개념과 목적은 무엇일까. 그의 〈다록〉 '장다'의 내용을 살펴보자.

차는 조리대 잎이 마땅하니 향을 두려워해서다. (차는) 따뜻하고 건조한 것을 좋아하고 습하고 찬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차를 보관하는 사람은 조리대 잎으로 다육의 입구를 싸서 봉하여 일차 2~3일 경이 지난 후 숯불을 이용하여 항상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하게 하면 습기를 막을 수 있다. 만약 숯불이 너무 뜨거우면 차가 타서 먹을 수가 없게 된다.
(茶宜箬葉而畏香藥, 喜溫燥而忌濕冷。故收藏之家, 以箬葉封裹入焙中, 兩三日一次, 用火常如人體溫溫, 則御濕潤。若火多則茶焦不可食)

그가 말한 장다, 다시 말해 차 보관의 목적은 습기가 차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습기가 스며들면 차의 정기가 사라져 먹을 수 없는 차가 된다고 보았다. 차의 오묘한 맛과 기세가 습기로 인해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인식했던 것이다. 그가 말한 장다의 조건은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한 곳에서 차를 보관하는 것이다. 바로 차는 따뜻하고 건조한 것을 좋아하는 속성이 있기에 이런 조건에서 차를 보관하여야 차의 진수가 사라지지 않아 오랫동안 오묘한 차의 진기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송대는 단차가 유행했던 시기로, 다육(茶育)에서 차를 보관하였다. 다육은 당대부터 활용하던 것인데, 송대에서도 차를 보관하는 장소로 유용하게 사용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차의 정유를 보존할 뿐 아니라 차의 정기를 증강시키는 장소로 사용된 것이다. 이어 명, 청 시대에도 장다의 중요성은 강조되었다. 하지만 차를 보관하는 방법이 변화되었는데, 이는 도자기에 차를 보관하는 등, 차 보관에 필요한 용구에 변화를 보였다는 점이다.

고려시대 장다는 송나라와 동일한 조건이 요구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고려의 차 보관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문헌 자료는 드물다. 다만 조선시대의 차 보관은 도자기에 넣어 두는 방법이 보편화되었던 정황이 드러난다. 이런 사실은 신위(1769~1845)의 '남다시병서(南茶詩幷序)'에 "초사 이산중이 (초의차) 얻어 강옥의 금령 박영보(1808~1872)에게 보내니 (차를)봉한 백자항아리에는 녹설아라 썼네(苕士得之奇江屋 白　封題綠雪芽)"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㉚

1. 기도(祈禱)와 수행에 대한 마음가짐과 방법으로 틀린 것은?
① 가능한 한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②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해야 한다.
③ 절, 염불, 주력, 참회등 한 가지만 해야 한다.
④ 주변의 모든 이웃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야 한다.
⑤ 불법에 대한 확실한 앎과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

해설 : 기도란 간절히 바라는 바를 성취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행위로 모든 종교에서 발견될 수 있으나 불교에서 기도는 수행으로 승화되어 단순히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상적으로 바꾸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으로 불교에서 기도는 일회성이 아닌 반복이 필요하며, 온몸과 마음을 다해야하고,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행복하고자하는 자비로운 기도를 해야하며, 부처님 법을 확실하게 알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 다만 조계종에서는 기도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2. 조계종의 신도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수지하며, 사찰을 외호해야 한다.
② 법회참석, 보시, 공양을 올리는 등의 신행활동을 해야 한다.
③ 종단의 인가를 받은 불교대학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④ 재적사찰에 신도등록을 해야 하며, 신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⑤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받들고 신도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해설 : 불자로서 조계종 신도는 삼(보)귀의, 오계수지, 사찰외호를 하며, 법회에 참석하여 보시, 공양 등의 신행활동을 하고, 재적사찰에 신도등록을 하고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알고 받들어야 한다. 종단 인가의 불교대학을 다니는 것은 권장되는 사항이나 조계종 신도의 자격요건이지는 않다.

3. 불교 용어의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간경 -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하면서 절을 하는 것이다.
② 도량석 - 사찰에서 스님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일하는 것이다.
③ 사시마지 - 한 달에 한 번 사시(巳時, 오전 9시~11시)에 맞춰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④ 불공 - 불보살님께 음식, 향, 꽃 등의 공양을 올리며 자신의 바람이 성취되기를 발원하는 의례이다.
⑤ 울력 - 사찰에서 아침 예불을 하기 전에 천지 만물을 깨우고 도량을 청정하게 한다는 뜻으로 목탁을 치면서 주위를 도는 의식을 말한다.

해설 : 간경은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보는 것, 도량석은 새벽 기상시간에 사찰 대중을 깨우는 일, 사시마지는 매일 사시에 맞추어 불공을 올리는 일, 울력은 사찰의 구성원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일하는 것을 말한다.

4. 불교의 특징과 수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불교의 수행은 참선이 최고의 지름길이며, 참선을 하지 않고는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 간경이나 염불 등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하는 방편일 뿐이다.
② 불교의 수행은 고행과는 다르다. 과거의 잘못된 업의 결과로 잘못 길들여진 습관을 개선하여 좋은 업을 쌓고, 어리석음을 깨우쳐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③ 불교는 스스로 깨달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스스로를 구제하는 자력의 종교이다. 따라서 남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는 서로에게 수행에 방해가 된다.
④ 불교는 자신의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불성을 깨워 성불할 것을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거나, 남이 잘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깨닫기 전에는 어떠한 행동도 실천에 옮길 수 없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진리에 부합하는 지 깨닫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해설 : 불교의 수행은 고행과는 달리 과거의 잘못된 업의 결과로 잘못 길들여진 습관을 개선하여 좋은 업을 쌓고, 어리석음을 깨우쳐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좋은 업을 쌓는 수행으로 불교는 독단적이고 개인적인 방법이 아니라 포용적이고 남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장려한다. ①, ③, ④, ⑤와 같이 하나의 수행만을 고집하거나 자신만의 구원을 우선하고 중요시하는 것은 불교에서 장려하는 수행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 ① ③ ② ③ ③ ④ ④ 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